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年 2月
碩士學位 論文

중국 教會史 연구

- 基督教 宣敎를 中心으로 -

朝鮮 大 學 校 大 學 院

東 洋 學 科 (中 語 中 文 學 專 攻)

黃 山 榮

중국 教會史 연구

- 基督教 宣敎를 中心으로 -

The Study on the Church history of China

2012年 2月 24日

朝鮮 大 學 校 大 學 院

東 洋 學 科 (中 語 中 文 學 專 攻)

黃 山 榮

중국 教會史 연구

- 基督教 宣敎를 中心으로 -

指導敎授 曹喜武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0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東洋學科 (中語中文學專攻)

黃山榮

黃山榮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金 河 林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韓 宗 完 (인)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曹 喜 武 (인)

2011年 11月

朝 鮮 大 學 校 大 學 院

〈目 次〉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동기	1
제2절 연구 목적	2
제3절 연구 방법과 범위	3
제2장 중국교회의 역사	5
제1절 중국기독교 전래	5
1. 유대교	6
2. 경교	6
3. 천주교	7
제2절 중국교회사의 시대 구분	9
1. 중국교회의 태동과 성장(1807-1911)	11
2. 중국교회의 확장과 전환(1911-1949)	19
3. 중국교회의 환란과 부활(1949-현재)	28
제3장 중국교회의 현황	35
제1절 중국의 기독교 정책	35
제2절 삼자교회	37

1. 삼자교회의 재건	37
2. 삼자교회의 신학사상	40
제3절 가정교회	41
1. 가정교회의 형성과 특징	41
2. 가정교회의 형태와 지역별 특성	45
3. 가정교회의 신학사상	48
제4장 결론	50
참고 문헌	53

ABSTRACT

The Study on the Church history of China

Hwang San Young

Adviser : Prof. Cho Hee Moo. Ph.D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hristianity introduced by the West was understood as a rival relationship with Confucianism in China, for it has an unique tradition and Sinocentrism. History of China shows that suffered conflict and friction exceptionally as Christian missions done in earnest when china undergo changes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the 19th century. Recently, as the Chinese government's pursuit of globalization and expanding exchanges with Western countries, cultural exchange of East-West presented in Chinese modern history, new understanding of the roles of Christianity and the new assessment are underwa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bout Christianity in China through the chinese church history centered on a Christian mission.

First, I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China, I looked around how the chinese church reaches the china of today with any history. In turbulent flow of world history, the church of China spent in isolation for a long time didn't prepare countermeasure and christian mission was conducted in resistance due to invasion of Western imperialism. That was why the chinese mission came back a long way by being recognized as a colonial missionary.

Second, I examined the status of the chinese church centered on Sam-ja church and house church that were recognized as a

distinctiveness of the church in china. I have overlooked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chinese church that walked spontaneously due to china's aborted mission and in an atmosphere of reform and opening-up, at this time welcoming the opportunity to encounter the chinese church again, they are the issue that christian mission groups around the world need to be solved together.

Finally, through the study of the china's church history with a focus on christian missions, that's where the proposals to further the growth of the chinese church in terms of mission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and give up the cultural racism.

Second, we need to have an interest in training a leader to make the church itself rooted so deeply through the open door of difficult missions in china.

Third, we need to get ride of side or slanted thinking about the china's church history and desperately request an effort to find out the chinese church more.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동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 유구한 역사와 그로 말미암은 잠재력 등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의 중국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 등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분에서 중국식 개혁을 이루고 있으며, 그런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듯 세계를 향하여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세계는 그런 중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오래 전부터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진 나라였다.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넓게 형성됐다. ‘공자’를 시대정신을 이끄는 조타수로 등장시켜 ‘가장 중국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도가 곳곳에서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여러모로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정신적 공허감과 가치관의 혼란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집권 공산당의 유물론에, 중국 문화가 지닌 강력한 현세주의적 가치관으로 1949년 건국 이후의 사회주의 중국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체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었다. 1989년 6·4 천안문 사태 이후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위험성을 느낀 중국 공산당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더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규와 조례를 만들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가정교회를 더욱 통제하는 등 종교가 발 딛을 틈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건국 60주년을 넘긴 오늘날의 중국에서 서서히 공자 열풍 뿐 아니라 종교의 열정이 살아나고 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중국 정부의 제한적인 개방 정책에 따라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정부 공식 추산 중국 내 개신교 신자는 1,600만 명이지만 허가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 교회의 신자까지 합치면 약 7,0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이 중국사회과학원의 추산이다. 중국의 기독교 신자는 이제 농촌을 넘어 도시의 기업인, 전직 고위 공산당 간부 등을 신자로

끌어들이면서 교세를 크게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중국공산당이 종교의 윤리·도덕적 작용에 주목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¹⁾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고 해도 앞으로 중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왕성하게 될 것이며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 블로그를 통해 접한 소식에 의하면 지난 7월 27일 중국 溫州에서 대규모 고속열차의 추돌사건 발생이 세계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의 뒤처리과정에서 의외로 종교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유족 100여 명이 “전통과 믿음에 따라 장례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기독교 방식의 장례를 허용하라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공식적으로 무신론을 표방하는 국가인 중국에서 대규모 합동장례식을 기독교 방식으로 치루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 당국과 유가족은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화장터 근처에서 종교행사를 치루는 것에 합의했다. 중국인들이 종교적 신념을 당국에 표출하여 요구의 일부를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급격히 다변하고 있는 중국 기독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중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세계 각 국에서도 최근 중국선교에 많은 관심이 일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거나 단기선교 또는 아웃리치를 떠나는 붐이 일고 있는데 급격히 다변화되고 있는 중국과 중국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제 2 절 연구 목적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독특한 전통과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서구를 통해 유입된 기독교를 유교와의 대립관계로 이해했다. 19세기는 중국의 내외적으로 변혁을 겪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유난히 갈등과 마찰을 겪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

1)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현대중국학회, 『공자는 귀신을 말하지 않았다.』, (중앙 books, 2010년), pp91-94

서의 기독교 연구는 철학과 종교학이라는 넓은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독교사에 대한 연구도 종교사 혹은 역사학의 영역에서 공산주의 철학에 의해 비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관련서적들은 비판적 시각에 의해 기술되어 있고 역사적 사실과 자료의 나열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 정부의 세계화 추구하고 서방 국가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중국 근대사 속에 나타난 동서 문화의 교류와 기독교 역할에 대해서 재인식과 새로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실로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선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교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해 취약한 곳으로 인식되는 중국의 기독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독교 선교의 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은 본고의 서론으로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제 2장에서는 중국 교회의 역사를 기독교 선교를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중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중국교회는 어떤 역사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을까? 중국교회의 태동과 성장(1807-1911), 중국교회의 확장과 전환(1911-1949), 중국교회의 환란과 부활(1949- 현재) 등에 대해 시대별로 알아볼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중국교회의 현황을 중국교회만의 특수성으로 인식되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 4장은 본고의 결론으로 중국교회를 통해 알게 된 중국교회에 대한 선교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으로 본 논문을 마치려고 한다. 종교로 인식되기도 전에 왜곡되는 역사를 가진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에 대한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방법과 범위

중국에는 많은 교회사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연구의 절실함을 느낀다.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이미 번역된 중국에 관한 역사 서적들과 기존의 학술잡지들, 선

행되어진 논문들과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시간적 연구의 범위는 기독교 전래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1807년 이후의 중국의 근현대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의 기독교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에 온 1807년을 기점으로 삼아도 200여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진 중국교회사의 방대한 역사를 다루기에도 역량이 부족함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제 2 장 중국교회의 역사

1930년대에 출판된 표준중국어참고사전인 ‘辞海’에 의하면 종교는 ‘삶을 가르치는 전해 내려오는 제도이다. 그 근원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가르침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 공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대인들이 무 생명체를 생명체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연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공포감으로 그들을 섬기고, 모방하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했던 것이 종교라고 본다. 이것이 종교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불가지론적이며 회의적인 정의라 볼 수 있다. 서구적인 종교의 개념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종교의 개념 자체가 상이한 중국의 중국교회사 연구를 통해 역사적인 흐름 속에 나타난 과거의 교회와 현실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평가함으로써 중국 교회와 신학에 대한 성경적 지침과 미래 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 1 절 중국 기독교 전래

현재 중국의 종교 조직은 천주교의 조직으로 중국천주교애국회, 중국천주교교무위원회, 중국천주교주교단이 있으며, 기독교 조직인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중국기독교협회가 있다. 그리고 중국도교협회, 중국불교협회, 중국이슬람교협회가 조직되어 있어 8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는 기독교 3대 종파가 모두 존재하며, 역사적으로 56개의 다양한 민족들과 그 문화의 터 위에 다양한 모습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는 개신교를 지칭하는 기독교와 천주교, 동정교 등으로 나누어진다.³⁾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 유대교나 경교 등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접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미 세워진 기반 위에 선교활동이 시작되었음을 감

2) 전기호, “개방전후 중국기독교정책과 중국교회”,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2007년), p6재인용

3) 김학관, 『중국교회사』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5년), pp32-33

안할 때 기독교 전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유대교

중국에는 유대교가 전래된 증거가 있다. 그 흔적은 1926년 프랑스인이 발견한 개봉의 유대인 회당에 있는 3개의 히브리어 비문 조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비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중국에 온 연대와 경로 그리고 중국 문화에의 동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 역사는 1489년, 1512년, 1663년 3기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개봉의 교회당은 600여 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1605년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정착한 유대 민족의 역사를 고찰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경전이나 문자와 어휘 그리고 회당의 건축 양식을 살펴볼 때 이들이 당 나라 때에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과 흡사하다고 여겼다.⁴⁾

2. 경교

중국의 기독교는 당나라 때에 景敎(Nestorians)가 처음 전래된 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⁵⁾

중국 역사에서 당나라 시기는 국제적 교역이 왕성하였던 시기로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상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당의 수도인 장안에서 교역을 하였으며, 국가적으로도 이를 장려하였다. 외국 문물에 대한 커다란 거부감이 없었고 또 그것을 여유롭게 받아 들일만큼 발달된 문화가 이미 지니고 있었던 중국으로써는 외래의 종교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에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었다.⁶⁾ 신흥왕조 인 수나라를 정복하여 당을 건립한 당 태종은 정권을 안정시키며, 문화 포용정책을 즉시 시행하였다. 상이한 중국 고유의 남북조 문화를 융합, 통일하고 여기에 외래적 요소를 포함하는 어느 정

4) 김학관, 『중국교회사』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5년, pp33-34

5) 김학관, 상계서, p34

6) 고혜전, “중국 천주교 전래과정과 천주교 애국회 형성 배경에 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2003년), p7

도 세계성과 국제성을 띠고 있는 정책이었다. 당대의 문화 포용정책은 종교 면에서도 외래 종교의 유입과 융합을 용이하게 하였다. 당대에는 모든 종교들이 타협하고 융합하려고 하는 기운이 조성되었다. 당은 문호를 널리 개방하고 모든 종교를 허용하고 환영하였다.⁷⁾ 네스토리안들은 612년 경 아랍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이슬람 세력의 위협을 피해 동방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당시 강력한 제국을 이룬 당나라의 문호 개방 정책으로 인해 이들은 중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네스토리안교를 경교라고 불렀으며, 13세기 원나라에서는 천주교와 함께 야리가온교 혹은 십자교라고 불렀다.⁸⁾

경교가 공식적으로 중국의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당 왕조 635년의 네스토리안 선교사인 알로펜(아브라함)이 장안에 도착한 것이다.⁹⁾

3. 천주교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오래 전에 중국에 전래되었다. 경교의 자취가 사라진 후 다시 기독교가 중국에 등장하게 된 것은 중국 한족이 아닌 몽고족에 의해 세워진 원나라 건립 이후이다. 원의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에 교황 사절이 오고 갔다는 것이다. 당나라의 멸망 이후 징기스칸의 유럽 정복으로 동서간의 교통이 트이게 되었고 지금의 천주교인 서방 교회의 사절이 중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기도 했다.¹⁰⁾

이후 천주교가 정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1295년 이탈리아 프란시스코회 수도사 몬테코르비노에 의해서이다. 그는 1305년에 6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북경에 3개의 성당을 세우기도 했다.¹¹⁾

외래 종교였던 천주교는 토착적인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원의 멸망과 함께

7) 박희찬, “경교의 당 시대 선교와 한국 전래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1999년), p5

8) 김학관, 상계서, p34

9) 박희찬, “경교의 당 시대 선교와 한국 전래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1999년), p6

10) 고희전, “중국 천주교 전래과정과 천주교 애국회 형성 배경에 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2003년), pp11-13

11) 김학관, 상계서, p36

모두 중국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명나라 말기에 예수회 회원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시 중국 내 그리스도교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원나라 멸망 이후 그리스도교가 중국 역사에 재등장하게 된 것은 17세기 명나라 말기 들어온 예수회가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다. 이전에는 주로 중국의 교역 확대와 새 왕조의 설립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였다면 명나라 시기의 예수회의 중국 진출은 순수하게 선교를 목적으로 천주교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 중국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자 노력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예수회원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현지 적응적인 선교방식은 명나라 시기에 천주교가 큰 어려움 없이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되었고 200년 동안 침체되었던 천주교 복음 사역에 기초를 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은 마테오 리치였다.¹²⁾

마테오 리치는 1603년 천주교의 교리를 기록한 ‘천주실의’를 남겨 서양의 천주교 교리를 중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와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선교의 발전과 천주교의 중국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1643년에는 천주교와 중국 전통 문화가 충돌하게 되는데, ‘천주’와 중국 ‘상제’의 혼용, 공자제례와 조상 숭배 등에 대한 中國禮儀之爭이 발생했다. 1704년 교황 클레르망 11세는 주교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의 모든 제례를 이단으로 규정, 금지하도록 결의하고 중국에 통고했다. 그러나 1706년 강희 황제는 로마 교황청의 결의에 적극 반대하여 공자제례를 반대하는 천주교 선교사들의 중국 거주를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1723년 왕위에 오른 옹정 황제는 모든 교회를 폐쇄했으며,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중국에서의 천주교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742년 교황청은 더 엄격한 결의를 함으로써 명나라 조정과의 대립은 더욱 거세졌다.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아편전쟁이 일어나 개신교의 포교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의 선교는 천주교 선교였으며,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예수회 소속이었다. 천주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개신교 선교에 밀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명나라 말엽에 궁중에만 500여 명의 신자와 전국적으로 20여 만 명의 신자가 있었다. 천주교 선교의 몰락에 대하여 중국학자들은 여러 가지 원

12) 고희전, 상계서, pp14-16

인들을 들고 있는데, 그 중 주요한 것으로 로마 천주교의 중국 전통 문화와의 모순과 충돌로 일어난 예의지쟁, 청나라 조정의 장기적인 금교정책, 예수회의 로마 교황청에 의한 강제 해산 등이 있다.¹³⁾

제 2 절 중국 교회사의 시대 구분

기독교는 1세기 초에 출현한 후 그 발전 과정에서 교의의 분기로 말미암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여러 가지의 연고로 말미암아 다시 분열되어 東正教(Orthodox) · 천주교(Catholic) · 景教(Nestorians) · 更正教(Protestant) 등의 교파를 출현시켰는데, 이들 교파는 각자의 특정한 명칭을 가졌으므로 자연히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교파는 결국 동일한 원천에서 나왔고, 피차간에 여전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문에서는 통상 그것을 ‘christianity’ 라고 하는데 중문은 그것을 ‘기독교’ 로 번역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란 개신교를 지칭하는 기독교와 천주교, 동정교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16세기에 출현한 종교개혁은 새로운 교파를 낳았다. 영문에서는 ‘protestant’ 라고 칭하였지만, 중문의 역어는 시종 통일되지 않아 경정교 · 기독교 · 신교 · 향라종 · 기독교 등의 몇 개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들 역어 중 ‘경정교’ 와 ‘향라종’ 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의역한 후 다시 변화한 것이고, ‘기독교’ 와 ‘신교’ 의 명칭은 구교 ‘천주교’ 에 상대한 것이다. 원래 ‘기독교’ 라는 말은 16세기에 천주교에서 이탈을 표명한 후 초대 기독교회의 형태로 고치고 초대 기독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중문에서는 ‘기독교’ 라는 명사로 번역될 수 있다. 역어가 통일되지 않은 채 시세의 추이 중에 경정교 · 신교 · 향라종 등의 명칭은 여전히 불명확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점차 감소되고 ‘기독교’ 라는 명칭은 명확성이 높고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점차 다른 역어에 대신하여 정식 명칭이 되었다. 따라서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바로 종교개혁으로 출현한 새로운 교파를 기독교로 칭하였고¹⁴⁾ 본고는 협의의 개념

13) 김학관, 상계서, pp37-39

에 따르기로 한다.

중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남경조약이 체결되던 19세기 중엽부터이며, 그 200여년의 중국 선교 역사는 아직까지 중국 선교사와 중국 교회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에 곧 중국 교회사와 시대 구분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자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5분설 주장자인 이사하라 켄은 정치사 특히 대외 관계사를 배경으로 중국교회사를 다음과 같이 5시기로 구분하였다.

제 1기 선교준비시대(1807-1842) : 최초의 선교사 도래에서 남방에서의 선교
기지 준비의 시대

제 2기 개척시대(1842-1860) : 남경조약 체결에서 북경조약에 이르는 홍콩과
5항의 개척의 시대

제 3기 교회건설시대(1860-1895) : 북경조약 체결에서 청일전쟁에 이르기까
지의 교회 건설의 시대

제 4기 발전시대(1895-1925) : 청일전쟁 이후 기독교 발전의 시대

제 5기 수난시대(1925-1950) : 항일배외운동과 공산주의의 발흥에서, 또한
세계대전에 의한 중국사회 혼란 하에서의 선
교 수난시대¹⁵⁾

야마모토 스미코는 다음과 같이 4시기로 구분하였다. 제 1시기는 1807년에서 1860년 북경조약까지로서 선교 준비 시기인데, 이는 또 다시 1842년의 남경조약을 경계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제 2기는 1860년에서 1900년 義和團運動까지로서의 교회 건설의 시기이고, 제 3기는 1900년에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로서 교세 발전의 시기라고 한다. 그리고 제 4기는 1949년 이후 현재까지로서 공산주의 국가에 교회 조직이 만들어진 시대라고 한다. 제 3기의 초기까지는 외국 선교사에 의하여 선교가 진행되어 교회가 육성된 시대이며, 중국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1910년대 이후부터라고 한다.¹⁶⁾

14) 조훈, 『중국기독교사』 (도서출판 그리심), 2004년, pp9-10

15) 조훈, 『중국기독교사』 (도서출판 그리심), 2004년, p11

16) 조훈, 상계서, p11

한중수교 1년 전인 1991년 번역, 출간된 조나단 차오의 『중국선교핸드북』에서는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네스토리우스파와 초기 가톨릭의 노력(635-1807), 19세기 개신교 선교의 확장(1807-1911), 중국인 교회의 발흥(1911-1949), 현대 중국에서의 고난, 소생 그리고 교회성장(1949-1989 현재)로 구분하면서, 특히 공산정권 이후의 교회사를 시련기(1949-1958), 탄압기(1958-1966), 고난기(1966-1976), 소생기(1976-1980), 영적 갈등기(1980-1982), 박해기(1983-1984), 선교기(1986-1989)의 6단계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⁷⁾

김 학관 교수는 『중국교회사』를 통해 1949년 공산화 이후의 중국교회 역사를 보다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중국교회의 역사적 태동과 형성(-1842), 성장과 부흥의 시기(1842-1931), 교회의 위기와 재건(1931-1978), 중국교회의 재건과 미래(1978-현재) 4단계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교회사에 대한 시대구분은 학자마다 논제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국내 정치의 변화로 인해 교회사 시대구분이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중국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였기 때문에 정권의 변화에 따라 종교정책이 변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정치적 변화로는 서구 제국주의에 개방하게 된 1842년 阿片戰爭과 南京條約, 봉건사회의 종지부를 찍고 공화정 국가로 들어서게 한 1911년의 辛亥革命, 일제의 침략전쟁의 시작인 1931년의 滿洲事變, 1949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10년간의 文化大革命, 1980년부터 시작된 改革開放政策 등의 시대마다 기독교에 대한 반응은 변화를 맞이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본고는 중국교회의 태동과 성장(1807-1911), 중국교회의 확장과 전환(1911-1949), 중국교회의 환란과 부활(1949-현재)의 3단계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1. 중국교회의 태동과 성장(1807-1911)

17) 조나단 차오, 중국어문선교회 역,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서원, 1991년), pp4-6

18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던 중국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오랫동안 고립된 상태로 지낸 결과 변화의 흐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 식민지 열강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된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을 지탱시켜왔던 중화사상이 붕괴되고, 1842년 南京條約을 통해 연해주가 개방되면서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국에 입국하면서 해안지역의 선교를 실시함으로써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850년에 일어난 太平天國의 난은 서양근대 문명과 중국문화가 충돌하고 적응하는 계기가 되었고, 1860년 北京條約을 통해 내지선교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900년대 청조와 중국인의 민족주의와 애국심으로 인한 반서양·반제국주의 사상에 의해 선교 사역에 많은 장애와 고난이 초래되었다. 특히 의화단운동으로 힘들게 세운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희생당하기도 했던 시기이다.

가. 중국교회의 태동(1807-1842)

기독교의 중국선교의 시효는 웨슬레의 부흥운동이다. 감리교의 탄생과 부흥은 다른 교단에 커다란 동기를 부여했으며, 각 교단들은 복음의 열기를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해 1799년 4월에 “아프리카 및 동양 선교협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들을 각국에 파송한다.¹⁸⁾

1807년 5월 영국 런던선교회는 선교 개척정신이 충만하여 파송 받은 로버트 모리슨(R. Morrison, 중국명 馬禮遜, 1782~1834) 선교사가 1807년 9월 7일 중국 광주에 첫발을 내디딘 것을 시작으로 본다. 런던선교회가 모리슨에게 부여한 첫 번째 임무는 중국어를 습득함으로써 선교의 기초를 쌓는 것이다. 두 번째 임무는 中英辭書를 편찬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 임무는 만약에 가능하면 장래의 선교 발전에 대비하여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¹⁹⁾

18) 강문석, 『중국대륙선교』, (칼빈서적, 1995년), p58

19) 이병길, 『로버트 모리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년), p31

당시 중국 사회는 영국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어 선교활동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그는 동인도회사의 통역관 자리를 얻어 미국인으로 행세하면서 극히 제한적인 선교활동을 하였다. 모리슨은 선교 사업의 추진을 막는 세 가지 요소로서 청조 정부의 엄중한 금령, 마카오에 거주하고 있던 카톨릭 선교사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방해, 영국 동인도회사의 엄중한 규정에 의한 활동의 제한을 들었다. 그는 주위의 곤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무익한 충돌을 일으킴으로써 이후의 선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피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기독교 선교의 기초를 하나씩 쌓아 올라가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⁰⁾

1814년 모리슨은 자신의 문서번역과 출판사역을 도왔던 蔡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는 중국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또한 1826년 梁發이 모리슨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중국인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 모리슨의 중국선교는 복음전파의 기반이 되는 중국어 성경의 번역에 공헌했다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둔다. 1813년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해 신약을 출판했고, 1823년에는 구약을 출판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을 新天聖書라고 지칭했다.²¹⁾

또한 그가 말라카에 세운 英華書院은 중국 근대사상 최초의 서구식 교육제도의 학교였다는 점에서도 공헌이 크다.²²⁾ 또한 그가 쓴 「華英字典」(1815-1822)을 출판했는데, 이는 최초의 영중사전이다. 25년간의 중국 사역 기간 동안 영문판 21권, 중문판 12권의 책을 출판하고, 중국 문화를 서방에 소개하는 잡지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선교 초기에 있어서는 문서 선교의 분야에서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 모리슨과 함께 교육선교에 힘을 쏟았던 밀느(W. Milne)와 부친의 뒤를 이어 2대째 중국 선교에 헌신한 윌리엄 찰스 밀느(William Charles Milne), 미국공리회 소속의 선교사 브리지만(E. Bridgeman), 네델란드선교회의 칼 귀츨라프(K. A. Gützlaff) 등의 초기 선교사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전도용 책자와 서적을 발간하고 학교를 열어 중국교회 성장과 부흥의 기초를

20) 조훈, 상계서, pp17-20

21) 김의태, “중국 기독교 역사와 선교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약신학대학원, 2005년), p10

22) 이병길, 상계서, p279

다졌다.

나. 중국 교회의 성장(1842-1911)

국권이 약화된 중국에 5백만 파운드나 되는 아편이 다량으로 들여와 민생을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영국은 기독교 국가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자랑하는 기독교 국가가 국가의 위기 앞에서의 간절한 호소마저 거절하여 아편전쟁이라는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함을 주목하게 된다.

1840년 시작된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영국의 해병력 앞에서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배하여 南京條約(1842년)²³⁾이라는 불평등조약이 맺어졌다. 더욱이 1859년에 애로호사건으로 天津條約(1858년)이 맺어지는데, 이 조약에는 외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권리, 중국인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외국인도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여행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²⁴⁾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국 선교의 문이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한 아편판매와 전쟁, 그리고 불평등조약에 의해 무력으로 열리게 된 것은 현대 중국인들에게 반외세, 반종교 정책에 중요한 빌미를 제공했으며, 영국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과는 중국 선교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초기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학문과 문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중국에서의 선교답게 서적 편찬, 성경 번역, 의료시설 건립, 학교 건립, 고아원 설립 등 수많은 봉사과 헌신이 식민지 경쟁의 승리자 혹은 아편전쟁의 승리자로 밖에 인식되지 못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근대중국의 반기독교운동』의 저자 이시악은 기독교의 배척 원인을 다음

23) 남경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5개 항구(광주, 복주, 허문, 영파, 상해)를 개항한다. 2)홍콩을 분할하여 영국에게 넘겨준다. 3) 영사를 주재시켜 무역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 4) 2,100만 원을 배상한다. 전쟁 배상금 1,200만 원과 아편 배상금 600만 원, 무역 결손금 300만 원 등을 영국에 지불한다. 5) 관세를 협의한다. 중국은 관세를 영국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6) 公行制度를 폐지한다. 이는 청조의 무역 제한 정책 폐지와 동시에 영국의 자유로운 무역을 뜻하는 것으로서, 중국이 대외 무역 주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조나단 차오, 상계서, p58

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는 단지 외래종교라는 사실 때문에 중국에서 배척받은 것이 아니다. 중국은 본래 외래종교를 배척한 적이 없다. 불교와 마니교는 모두 외래종교이며 기독교의 한 지파인 경교도 외래종교였지만, 배척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명말 마태오 리치 등이 중국에 서양문명을 소개했을 때에도 그들은 중국인의 우대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선교가 식민주의와 혼합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게 되었다.” 25)

레닌도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들이 중국에 온 것은 단지 횡재를 위해서였다. 저들은 자신의 소위 문명을 이용하여 사기, 약탈과 진압을 행했던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해독을 주는 아편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중국과 전쟁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저들은 선교의 허튼 소리로 약탈전쟁을 은폐한 사람들인데 중국인이 어찌 그들에게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26)

중국 공산당은 인본주의적인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을 기초로, 근대사에 있었던 천주교의 예의지쟁 사건으로 인한 민족 정체성의 혼란,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시작된 기독교의 선교 역사를 통해 경험한 민족의 수난과 위기를 되새기면서 철저한 종교 정책과 사상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만나게 된다. 27)

남경조약을 통해 연해주가 개방되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합법적인 입국자 혹은 외래문화전파자라는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거 중국에 입국하여 해안 지역 선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어 중국교회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시기였다. 1859년에는 청나라 조정이 선교의 자유를 허락하여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어 1911년 이전까지 약 70년 사이에 130여 개 선교 단체 소속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게 된다. 28) 당시 활발한 선교활동을 편 허드슨 테일러와 홍수전의 태평천국, 의화단운동 등은 기독교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

25) 李時岳, 이은자 역, 『근대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 (고려원, 1992년), p17

26) 李時岳, 상계서, p17

27) 김학관, 상계서, p50

28) 김학관, 상계서, p65

(1) 허드슨 테일러와 중국내지선교회

1865년에는 허드슨 테일러(H. Taylor, 1832-1905)에 의해 중국내지선교회(CIM)가 설립됨으로 그동안 제한된 지역에 머물던 선교사역이 내지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선교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초교파적인 선교회로 구심점이 되었고, 선교회 지휘부가 영국이 아닌 중국에 있어야 함을 인식했고, 선교회의 일차적 임무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방법은 첫째, 내지를 향한 선교였다. 역사적 상황이나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교통·통신 등의 환경이 열악함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둘째, 중국인의 세계관을 이해하며, 문화적으로 철저히 중국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발, 의복, 주거 음식 등의 중국 문화에 가장 근접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나 험한 산간벽지에까지 다니면서 선교를 하였다.²⁹⁾

당시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의학, 교육, 복음의 접근이라는 삼중접근법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거의 모든 선교회는 진료소를 세우고, 병원으로 확대되면서 복음의 접촉수단이 되었다. 회심자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설립했으며, 이 학교들은 이 후에 고등학교로 발전되었고, 결국 13개의 기독교 대학으로까지 성장하였다. 그들의 전도사역은 노방설교와 복음 전도소의 설립에 집중되었는데, 도시에서는 물론이고 시골에도 세워졌으며 그 후 교회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선교방식은 중국이 공산화된 1949년까지 지속되었다.³⁰⁾

(2) 洪秀全의 太平天國

洪秀全은 1847년 동생 洪仁玕과 함께 광주에 가서 미국 침례회 목사였던 이삭 로버트(Issacher Robert)에게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그 후 홍콩으로

29) 이은경,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적 영성을 통한 현대 선교의 전망”,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년), pp11-12

30) 조나단 차오, 상계서, pp58-59

건너가 독일 선교사 郭寬敍에게 성경을 배운 뒤 拜上帝會라는 단체를 조직한다. 홍수전은 유명한 전도자로서 전도한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수천 명의 기독교 집단을 형성하고 성장한 이 집단은 정치집단으로 변하여 기독교의 이름을 빌어 혁명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태평천국은 종교, 민족, 정치의 삼대 목적을 가지고 대혁명을 시작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적인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천모, 천형, 천수, 천왕 등등이다. 즉, 천부가 있으니 천모가 있어야 하고 예수는 천형이고 홍수전 자신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인 천제라고 주장하면서 천왕으로 군림하였다. 홍수전의 이상 행동이 격화되면서 점차 기독교계의 지지를 잃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태평천국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³¹⁾ 신학적 기반이 약한 현대의 중국교회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모델처럼 느껴지는 사건이다.

(3) 義和團運動

1884년의 청·프 전쟁과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는 청나라의 종주권을 빼앗기는 계기가 되었다. 19세기의 열국 침략에 의한 아편전쟁, 홍수전에 의해 주도된 태평천국의 난,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청나라 조정은 점점 더 통제력을 잃어갔다. 대동아제국 건설의 야욕을 꿈꾸던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청일전쟁은 청나라를 한층 더 큰 국가적 위기로 몰아갔다.³²⁾

19세기가 끝날 무렵 긴장이 고조되고 불안정한 시기가 닥쳐왔다. 현대화의 기세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힘에 부딪치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도처에서 강렬한 적의에 봉착하였다. 선교사나 회심자들이 열강의 위엄을 등에 업고 횡포를 저질렀으며, 기독교 교리와 전통적 풍속의 충돌로 각처에서 교안³³⁾이 일어났다.

31) 이관숙, 『중국기독교사』 (서울, 쿤란출판사), 1995년, pp214-239

32) 김학관, 상계서, p66

33) 구교운동(仇敎運動)이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그리스도교의 중국 전래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을 가리키지만, 좁은 뜻으로는 19세기 후반에 발생한 의화단사건(義和團事件)을 정점으로 한 반그리스도교의 각종 사건을 이른다. 반교운동(反敎運動)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처음에는 외국의 종교에 대한 단순한 혐오감에서 저지른 폭력 폭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후에는 반교운동의 범위를 넘어 배외운동(排外運動), 즉 근대 중국의 반식민지화(反植民地化)·반봉건화(反封建化) 과정에서 민족해방 운동의 중요한 일환이 되었다. - 네이버 백과사전

의화권이란 권법을 사용함으로 의화단이라 지칭된 향촌 자위단체는 ‘외국인을 진멸하라’는 슬로건 아래 1898년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해운의 발달은 대운하에 의거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의 직업을 빼앗아 갔다. 황하의 범람이나 한발로 인해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아졌다. 때 마침 독일의 교주만 점거가 발생하여 민중 사이에 외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 지주화한 교회나 선교사는 알맞은 공격 목표가 되었다. 의화권은 촌을 단위로 이러한 민중의 불만을 조직해 갔다.³⁴⁾

민족, 생존 그리고 신앙이라는 3대 위기에서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중국인들의 잠재적인 불만과 대항 의식이었다. 그리하여 의화단은 전국적으로 선교사와 신도들을 살해하고 교회당을 불태우는 등 소위 외국 침략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말살을 감행한다. 특히 산서성 지역에서는 불과 몇 개월 만에 159명의 선교사와 외국인들이 살해되었으며, 또한 이들은 다시 북경으로 쳐들어와 수도를 포위하고 외국 공관과 교회당을 마구 파괴했다.³⁵⁾ 청나라 조정은 처음에는 군대를 동원하여 의화단을 진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민심을 믿으니 백성을 위로하며 도와주라는 조칙을 공포하여 의화단이 청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서양 외교관들을 습격하는 일을 용인하고 지지하였다. 의화단의 북경 동교민항에 있는 각국 공사관 공격을 빌미로 서양 열강은 8국 연합군을 조직하여 북경을 침략하였고 의화단은 서양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³⁶⁾

결국 청나라 조정은 1901년 신축조약 체결을 통해 문제를 일단락 짓게 되었다. 의화단의 난 이후 중국인들에게는 원한과 분노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었다. 게다가 선교사들 중에도 부패와 부정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사설 군대를 두고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의 선교사와 교회에 대한 원망은 점점 증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손문은 점차 민족의식과 구국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기독교적 선교 활동과 사회봉사를 통한 구국 이념에서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민주 혁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³⁷⁾

34) 조훈, 『중국근현대사』 (도서출판 역사교양사), 1999년, p82

35) 김학관, 상계서, p78

36) 노신외, 『격동의 100년 중국』 (도서출판 일빛, 2005년), p23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1900년 의화단이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실패한 이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중국에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1844년 선교사 31명, 기독교인 100여명이었는데, 1860년에는 선교사 200여 명과 기독교인 2,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1877년에는 470여 명의 선교사가 중국의 91개 지역, 312개의 처소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기독교인은 약 13,000여 명에 이르렀고, 1893년에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55,093명에 달하였으며, 교회나 집회소는 706여 개였다.³⁷⁾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있었던 세 차례의 선교사 대회 또한 중국 선교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중국교회의 확장(1911-1949)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 중화민국의 성립에서부터 1931년 만주사변으로 시작된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쳐 1949년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가. 중국교회의 확장(1911-1931)

중국교회는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의 포교활동의 자유선포와 서방 국가들의 종교 활동 보호 아래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갔다. 1920년대에 일어난 반기독교운동의 영향을 받은 중국교회는 자립교회운동과 본색화운동을 통해 질적으로도 크게 확장되는 시기이다.

(1) 신해혁명과 손문

역사상 근대중국에서 현대중국으로 옮겨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37) 김학관, 상계서, pp78-79

38) 김학관, 상계서, pp81-82

태어나 내적으로는 청조의 부패와 민심의 동요를, 외적으로는 열강의 침략과 잦은 전쟁, 그리고 중국의 몰락을 지켜보며 성장한 손문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 중화민국을 성립한다.

일찍이 서양의 지식과 과학문명을 접하고, 기독교사상에 기초한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을 갖게 된 손문은 일생에 걸쳐 전제정치의 압제와 가난, 그리고 열강의 침략 속에서 핍박받는 중국과 중국인을 구하고자 하는 민족운동과 구국혁명에 헌신했으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한 국가의 건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진정 그가 건설하고자 한 중국의 모습은 또 다른 봉건주의적 전제왕조의 회귀가 아닌 자유와 민주가 실현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이었다.³⁹⁾

바야흐로 사람들의 내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혁의 필요성이 인식된 손문의 『建國方略』의 제 1장은 「心理建設」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 魯迅은 어째서 그가 의사가 되지 않고 작가가 되었는가를 설명하여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정신을 뜯어 고치는 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중국인들은 중국 사회의 정신적 재건, 심리적 재건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받은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과거에 대한 평가’의 문제였다. 유교는 장기에 걸쳐 중국을 문화면에서나 정치면에서 지배해 왔다. 근대 중국의 긴 변혁의 과정에서 중국인은 집요하게 유교의 사상을 존중하거나 부활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정이 악화됨에 따라 유교에 반대하는 견해가 자라기 시작했고 전대미문의 통렬한 비판이 전통적 중국 문화의 기반 그 자체에 행해졌던 것이다. 유교가 역사적으로 국가와 깊은 관계를 가져온 것에 대해 즉 전제적 지배체제 옹호의 입장에서 해석되거나 기존의 정치·사회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 지적되었다. 또한 너무나도 종순, 연장자에 대한 복종과 존경, 경쟁의 기피 등이 덕으로서 강조되기 때문에 허약하고 저항력이 없는 인간, 이른바 근대 사회의 요구에는 부적격인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비난되었다. 새로운 시각이 있는 지식인들은 유교에 대신해야 할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각오를 서양에

39) 김학관, 『손중산과 근대중국』, (집문당, 2004년), p15

서 구하기 시작했다.

둘째, 5·4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상의 소개’ 라는 측면인데 이것이 기독교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와 ‘과학’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사상이었다. 지식인들이 가장 공감을 갖고서 받아들인 가치였는데 기독교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은 확실하다. 민국 초기에는 정부나 지식인들 모두 서방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흠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서방문화를 전파하는데 있어서 큰 공헌을 하였다. 귀중한 의학적저작들을 저술하고 번역 출판하기도 하였다.

셋째, 정신재건운동의 특질은 중국교육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고전적 유교 사상에 기초하여 관료제도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온 예로부터의 시험제도인 과거가 1905년 폐지되고 대신하여 구미형 학교 교육이 제도화되었는데 이러한 교육면에서의 개혁이 나중에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안성맞춤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이전까지의 미션 스쿨이 선교 사업의 부속품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복음 전파뿐 아니라 사회의 변혁·개혁에 교회가 훨씬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20세기 초엽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이 급증하였다.⁴⁰⁾

특히 교육 사업은 급진적으로 발전하였는데, 1936년 기독교연감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남녀 전문대학수 13개 대학, 남자 중학교수 100개교, 여자 중학교수 95개교, 남녀 합동중학교수 54개교, 고급 소학교 956개교, 초급 소학교 5,637개교, 남녀 대학생 수 6,423명, 남녀 중학교 학생 수 50,000명, 남녀 고급 소학교 학생 수 32,899명, 남녀 초급 소학교 학생 수 151,582명 등이다.⁴¹⁾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안고 1900년부터 1920년대 초기까지 기독교는 중국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급속도로 성장한다. 1914년 5월 1일에 공포된 중화민국 ‘約法會議議案’⁴²⁾에는 신앙의 자유를 명기하고 있어서 법률적, 사상적, 사회적으로 선교사와 중국인 전도자들은 전대에 없

40) 조훈, 『중국기독교사』 (도서출판 그리스), 2004년, pp136-138

41) 이관숙, 상계서, p301

42) 約法會議議案 제 2장 5조에 “백성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는 자유를 누리며 전도, 출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전 사역에 몰입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의 기독교는 새 기원을 맞이한 듯 보였다.

(2) 반기독교운동

그러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에 1920년대에 들어서 전국적인 ‘반기독교운동’이 전개된다. 1915년 신문화운동의 주창자들은 열강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합리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에 입각한 구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런 입장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거부적인 입장을 갖게 했다.

특히 1922 - 1927년의 반기독교운동에는 당시 거의 모든 당파, 단체, 지식인들이 참여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진행했다. 과학주의와 이성주의의 바탕 위에서 기독교와 중국 사회에 대한 관계를 토론하고, 신문화 운동의 기독교에 대한 각종 비판을 검토하였다. 점차 중국 민족과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운동과 자유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면서 기독교보다는 5·4 운동의 이성주의에만 전력을 다해 적응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단체도 생겨났다.⁴³⁾ 즉 기독교는 洋教, 반과학, 중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의 도구, 제국주의 문화침략의 선봉으로 간주되고, 민중의 공격목표가 되어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반기독교운동의 원인은 19세기 중엽부터 열강들의 압력에 의해 여러 불평등조약을 맺었던 중국이 그와 함께 들어온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저변에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에서의 이권 획득에 혈안이 된 모습은 또 다시 중국인들을 자극하고도 남음이 있다.⁴⁴⁾

교회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면서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로 인해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기존 외국선교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토착화하려는 시도로 분주했다. 외형적인 환경으로는 비록 소용돌이를 만났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선교가 제법 중국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43) 김학관, 『중국교회사』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5년), p132

44) 제3세계신학연구소, 『중국 기독교와 삼자운동』, (나눔사, 1990년), pp12-13

(3) 독립교회운동

중국교회들은 자신들이 제국주의와 무관함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교회가 앞서 불평등 조약 반대운동이나 기독교학교 교육권 회수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⁴⁵⁾

1910년대 이전에도 자립한 중국교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거의 모두 외국 선교사의 지도에 의하여 자립한 교회였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그 때까지의 자립교회와는 달리 외국 선교단체의 지배,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립하여 자주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선교활동을 개시하고자 한 것이다.⁴⁶⁾

중국 교회의 자립교회운동은 신해혁명이 성공한 후 산동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산동 지역은 의화단운동의 발원지였으며, 그 운동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교회들이 심하게 훼손되었던 곳이다.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자립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산동 지역에서부터 자립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산동성 청도장로회의 신도인 유수산이 몇몇 기독교인들과 함께 자립회를 결성했다. 그리하여 1915년에 정식으로 산동중화기독교회 성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상해에서는 유국정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애국애인의 마음을 기독교와 연계하여 자국민에 의한 선교를 실천하고자 중국기독교회를 창설하였다. 이후 중국예수교자립회를 창립하였고 1920년 중국예수교자립회 제1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애국, 애교, 애인의 사상과 자치, 자양, 자립의 정신에 의거하여 중국예수교자립회가 창립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예수교자립회는 급속히 성장했고 1921년에 150여 개였던 교회가 1924년에는 330여 개로 급성장하였으며, 신도 수도 2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참예수교회는 1917년 위은파가 창립한 교회운동이다. 안식일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각종 비정규적인 교파의 영향을 받아 점차 선교사들로부터 질책과 비평을 받게 되었다. 1921년 경전영은 산동성의 태안 마장에서 예수가정을 일으켜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를 건립하였는데, 역시 자립 운동 정신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었다. 예수가정의 교회들은 1926년 산동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비교적 독특한 가정교회 유형으로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45) 제3세계신학연구소, 상계서, pp11-13

46) 조훈, 상계서, pp166-169

60여 명으로 시작, 14개 처소에 불과했으나, 1949년 공산화 이전까지 마장에서만 500명이 함께 살았고 전국에 127개의 가정이 흩어져 예수가정운동을 벌였다. 1922년 위치만니에 의해 복주에서 시작되었고 집회소 또는 소군파로도 알려진 지방교회들이 일어났다. 지방교회는 기성 교회를 기독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어난 교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지방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지방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현재 지방교회의 배경을 가진 교회들은 가정교회 중 제일 큰 조직 가운데 하나이다.⁴⁷⁾

초기 중국의 자립 교회 운동의 정신은 중국 공산화 이후 핍박 가운데서 전개된 중국의 가정교회 운동의 전개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의 가정교회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⁴⁸⁾

(4) 중국교회 본색화운동

중국교회 본색화운동은 순수 이성을 기본으로 삼는 반종교 운동, 학생반기독교운동과 함께 국공 합작 시기, 기독교운동을 압박하는 때에 나온 일종의 대안적인 교회 운동이다.

본색교회를 영어로는 ‘Indigenous Church’ 라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를 중국화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개념이다. 本色이란 “중국적인”, “중국 고유의”, “중국인의” 하는 뜻으로서 본색교회는 조직, 경제, 사상, 신학적인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중국화된 교회를 지향한다.⁴⁹⁾

본색교회의 발단은 1913년 제 4차 기독교 전국대회에서 중국인 고유의 교파를 형성할 것을 도모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생긴 중화속행위원회에서 비롯되었으며 교회연합운동도 본색화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 예를 들면, 1912년 성공회가 중화성공회로, 1914년에 장로회 개혁파가 중국기독교 장로회로 하나로 연합하였다.

본색화운동의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중국기독교협진회(NCCC)가 1922년 5월 5일 제 5차 기독교 전국대회에서 본색교회에 대한 선언문 9조항을 채택하였는데, 그중 제 3,6,9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7) 김학관, 상계서, pp134-137

48) 김학관, 상계서, 2005년, p139

49) 이병길, 『중국 선교의 어제와 오늘』, (개혁주의 신행협의, 1987년), p117

제 3 항 : 우리는 서방에서 전해 온 기독교의 고전 의식과 조직에 대하여 비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중화기독교회의 영원한 건설에는 불리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중국인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 6 항 : 우리는 중국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自養의 목적을 달성하자.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 말며 중요한 일의 自治를 달성하자. 우리는 충분한 종교교육과 위대한 전도자를 양성하고 열정을 다하여 개인 전도자를 양성하여 自傳의 목적을 달성하자.

제 9 항 : 우리는 이것을 宣告할 때에 이르렀다. 우리 중화 신도들은 겸손히 연구하고 어려운 시험을 담대히 참고 교회의 예절과 의식과 조직, 계통, 질서를 잘 지켜서 교회를 확장하는 등 현재의 중국 교회를 잘 인도하여 중국 본색의 교회가 되도록 하자.⁵⁰⁾

이 선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본색화운동의 본래 의도는 외국 선교사와 연계된 교회 사업의 조직을 분리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그리고 신학 사상을 의지하던 것으로부터의 독립과 통제였다. 그리고 중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와 중국 문화 간의 융화와 절충을 통해 중국 교회의 앞길을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국공합작⁵¹⁾이 분열된 후에는 점차 기독교

50) 이관숙, 상계서, pp306-307

51) 제1차 국공합작은 1921년 7월 탄생한 중국 공산당은 그 해 제1기 전국대표대회 직후 제국주의와 군벌을 타도하고 ‘민족혁명’을 성취할 목적으로 국민당과의 합작을 결정하였다. 이는 1920년 레닌이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서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 식민지 해방투쟁에서 부르주아의 역할을 중요시한 데 따른 것으로서 1920년경부터 반제(反帝)·반봉건(反封建)의 입장을 취해 오던 국민당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1923년 쑨원-이오펬 선언을 거쳐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공식적인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1924년 제1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연소(聯蘇)·용공(容共)·농공부조(農工扶助)’의 3대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공합작이 발족되었으며, 공산당원은 그 당적을 보유한 채 개인의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형식을 취하여 리다자오[李大釗] 등 3명이 중앙집행위원에, 마오쩌둥[毛澤東] 등 4명이 중앙 집행위원 후보에 선출되었다. 이에 힘입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1927년 우한[武漢]에 혁명정권이 수립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좌파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한 장제스[蔣介石]는 1927년 4월 상하이[上海]에서 반공 우파 쿠데타를 감행함으로써 국공합작은 결렬되고 공산당은 불법화되었다. 이러한 패배에 큰 타격을 입은 중국공산당은 토지혁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에 주력하였으며, 마오쩌둥[毛澤東]을 지도자로 하는 장시성[江西省]의 ‘중화소비에트’를 성립시켜 난징[南京]정부에 대항하였다. 이에 따라

를 반대하는 압력이 느슨해지면서 본색화운동도 멈추었다.⁵²⁾

1920년대야 말로 반기독교운동, 독립교회운동, 본색화운동 등을 통해 중국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장되었던 시기였다. 1910-1920년 사이에 선교사는 1899년 1,296명에서 6,204명으로 증가했으며, 기독교인도 1990년의 95,943명에서 1920년에는 366,524명으로 4배나 늘었다. 그 중 초신자가 313,254명이었다. 또한 중국인 전도인도 12,967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 남자 전도인은 4,299명, 여자 전도인은 1,515명이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에 세워진 자립 교회당은 4,727개였으며, 전도처는 약 6,480개나 되었다.⁵³⁾ 1807년에 태동되어 1931년까지 120여 년간 성장하고 부흥해 온 중국교회는 1931년 만주사변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만나게 된다.

나. 중국교회의 전환(1931-1949)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⁵⁴⁾을 일으킨 일본은 동아시아의 신질서 건설이란 명분하에 1932년 3월 1일 만주국을 건설했다. 중국의 동북 지방을 점령한 후 나아가 전 중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1937년 7월 7일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중일전쟁은 중국 전 지역을 전쟁의 소용

10년간에 걸친 국공내전이 전개되었다. - 네이버 백과사전

52) 김학관, 상계서, pp139-141

53) 김학관, 상계서, p124

54) 일본이 1931년 9월 18일 류타오거우 사건[柳條溝事件 : 만철폭파사건]을 조작해 일으킨 만주침략전쟁.

일본 군부와 우익은 일찍부터 만주의 이권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일본 관동군 참모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등이 앞장서 만주침략계획을 모의했다. 이들은 류타오거우에서 스스로 만철 선로를 폭파하고 이를 중국측 소행으로 몰아, 만철 연선에서 북만주로 일거에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관동군은 세계공황으로 열강의 간섭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장쉐량[張學良]이 베이징[北京]에, 또 봉천 군벌의 주력이 장성선(長城線) 이남에 집결해 잔류 수비대가 동삼성에 분산되었던 '절호의 기회'를 포착해, 1931년 9월 18일 이후 만주 점령작전을 시작했다. 관동군은 5일 만에 랴오둥[遼東]·지린[吉林]성의 거의 전지역을 장악하고, 이 지역 군벌들에 압력을 가해 두 성의 독립을 선언하게 했다. 이어 11월에는 소 만 국경을 이루는 동북3성 전역을 장악했고, 1932년 1월 장쉐량의 반만항일 거점인 진저우[錦州]를 점령하고 3월 1일 만주국을 세웠다. 국제연맹은 중국측의 제소에 따라 리턴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보고서를 채택, 일본군의 철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러허 성[熱河省]마저 점령한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1933년 3월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만주침략으로 세력을 강화한 일본 군부와 우익은 정국을 장악하고 일본을 파시즘 체제로 전환시키는 한편 1937년에는 중일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 브리태니커 백과

돌이에 휘몰아 넣었고 중국 민족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안겨 주었으며,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의 양상에도 커다란 변화를 준 동시에 중국 현대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교회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 핍박과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교회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점령 지역에 따라서 종교 활동을 보장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였다. 초기에 국민당은 종교 활동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반기독교운동의 배후에 공산당과 사회주의 청년단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1940년대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오랜 간섭과 내분으로 인해 선교 활동의 어려움, 특히 일본의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교회의 파괴가 더욱 심해지면서 중국교회는 갈수록 침체되기 시작하였다.⁵⁵⁾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연안 지역이 점차 일본군에 의해 함락되었지만, 일본이 서방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 별다른 박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1년 진주만 사건 이후 일본은 서방국가와 전면적인 적대 관계로 전환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거의 문을 닫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며, 일본군의 폭격에 의해 당시 상해에 있던 중국내지선교회 총본부 사무실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다. 일본군은 점령지역의 교회를 파괴하였고, 서양의 선교사들에게는 더욱 가혹하였다. 장기간의 감금으로 영양실조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⁵⁶⁾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중일전쟁이 끝나면서, 중국 교회와 재입국한 선교사들과 함께 중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운동과 부흥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하였다. 항일 전쟁 기간 침체되었던 교회가 생기를 얻는 듯 했다. 통계에 의하면 1947년 말에는 선교사들의 재입국이 이루어져 외국 선교사가 증가하였고 활발한 선교 활동의 재개로 인해 1949년에 이르러서는 중국 기독교인은 835,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교회도 6,500여 개로 증가했다.⁵⁷⁾ 그러나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오랜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중국 교회는 또

55) 김학관, 상계서, pp156-157

56) 강인규, 『중국을 주제로』 “항일전쟁시기의 중국기독교”, (통권96호, 2006년 7,8월호), pp74-75

57) 김학관, 상계서, p155

다시 지나긴 고난과 핍박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3. 중국교회의 환란과 부활(1949-현재)

중국 공산당은 공산화이후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교회를 서구 교회들로부터 단절시키고자 했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자들의 문화적 침략 도구로 인식되어온 기독교 및 종교 전반에 대해 혁명적인 정책과 핍박을 실시하였다. 10년간의 문화대혁명(1966-1976) 기간 동안 중국의 모든 교회들이 사장되지 않은 것만도 대단할 정도로 교회적으로는 암흑기였다. 1976년은 중국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한 해였다. 모택동 주석과 주은래 총리가 사망하고 자연재해로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피해가 컸던 당산 대지진이 일어났으며, 무엇보다도 10년간의 재앙인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해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가. 중국교회의 환란 (1949 -1976)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은 모택동을 영도로 하여 천안문 광장에서 사회주의 체제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은 계속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 사상의 지도 아래,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와 사회주의의 길, 개혁개방 정책을 고수하고……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1954년 첫 반포된 이래 2004년의 수정본에 이르기까지 ‘중국공산당의 지도’란 문구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다.⁵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唯物論과 無神論을 기초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종교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58)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2010-2011 차이나 트렌드』, (중앙 books, 2010년), p159

(1) 마르크스의 종교관과 레닌의 종교관

“종교란 본질적으로 인간 이성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행위는 곧 인간의 정신적 요소의 한 표현인 동시에 종교는 철학적인 이론의 한 부분이다. 종교는 결국 인간의 이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특수한 요소이다.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교는 존재와 사상 사이에 끼어들므로 해서 그 존재 이유가 규명되어진다. 종교는 철학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종교와 철학 양자는 인간이 이성과 지적 요소에 해당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종교와 철학은 언제나 융합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철학이 일종의 인간의 이성에 입각한 이론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같은 의미에서 종교도 일종의 이론적 개념이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곤궁한 피조물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며 또 정신을 상실해 버린 현실의 정신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말하였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종교를 부정한 것이고 종교에 대한 대립적인 태도를 밝힌 것이다.⁵⁹⁾

또한 마르크스는 신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한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일 뿐 결코 객관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신의 존재 문제는 개인의 양심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 개인의 양심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 본성에 착각을 일으키면서 비현실적인 어떤 존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신의 존재는 인간이성이 잘못 이해되는 곳에 신은 존재한다. 부조리하고 참된 사상이 없는 곳에 신은 존재한다. 결국 신은 이 세상을 부조리하게 생각하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의 존재 그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부조리가 신을 만든다.⁶⁰⁾

레닌은 종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교란 가난과 고립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영원한 일로 억눌린 인민 대중 위에 어디에나 놓여있는 정신적 억압 형태의 하나이다. 착취계급과의 투쟁에 있어서 피착취계급의 무력함은 마치 자연과의 투쟁에서 야만인의 무력함이 신과 도깨비와 기적 등등에 대한 믿음을 낳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불가

59) 정석배, “모택동 시대의 정치 상황이 중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통한 중국 선교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년), p6

60) 정석배, 상계서, p6

피하게 사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일생동안 일하고 적빈한 사람들에게 종교는 천상의 보답에 대한 기대로써 위로하면서 이승에서는 인내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상에 있을 때 자선을 행하도록 가르친다. 이로써 종교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두의 착취자로서 생존을 매우 값싸게 면죄시키는 방법을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천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티켓을 파는 것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자본의 노예가 자신의 인간적 형상을 그리고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인간적 삶에 대한 요구를 역사시켜 버리는 싸구려 정신적 술의 일종이다.”

레닌은 ‘종교는 자본 계급의 쓰레기이며 그것은 역시 대중의 자발적인 일반 신앙은 결코 아니다. 종교는 봉건적 압박자, 제국주의자, 반혁명 분자의 도구이고, 인민 대중을 착취함으로 인민의 반동분자, 반혁명의 문제’로 보았다. 레닌은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반드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장기간 발전하고 모든 객관적인 조건이 구비될 때만이 자연히 소멸된다고 보고 있다.⁶¹⁾

(2) 중국공산주의와 종교정책

모택동의 종교관은 마르크스, 레닌의 종교관에서 다져졌다. 그는 말하기를 ‘종교는 국가 사회에 공헌이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으나 만일 종교가 국가를 침해한다면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고 하였다. 서구 제국주의와의 불평등 조약에 의해 중국에 침투한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도구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모택동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원인의 초점이 되었다. 모택동은 ‘공산당원도 어떤 唯心論者 심지어 종교 신도와 정치 행동사의 반제·반봉건의 통일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의 유심론 또는 종교 교리를 찬동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⁶²⁾

공산주의의 종교비판은 주로 기독교에 대한 것이고 공산주의 사상의 출현은 당시 교회와 신학의 문제에서 출발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공산주의 사상은 종교를 거부하면서 이성적인 휴머니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공산주

61) 정석배, 상계서, pp6-7

62) 정석배, 상계서, pp6-7

의자들의 종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모든 인민들을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⁶³⁾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인 1949년 9월 북경에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의 결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 내면에 숨겨진 부패와 악습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공산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기독교 인사들과 주은래 총리와 의 좌담회에서는 자립, 자양, 자전의 3대 원칙을 결의하였다. 이 삼자선언에서는 중국 기독교는 140여 년의 역사를 걸어왔으며, 과거 100년 동안 중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고 밝히고 정부의 인도 하에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관료주의를 반대하며, 하나의 독립, 민주, 화평, 통일, 부강한 중국 건설에 전력하는데 있다고 정했다. 그리고 1950년 10월 전국기독교협진회 제14차 연차대회가 열렸으며, 전체 회의에서 대표들은 삼자선언을 옹호하며, 전국 기독교인들이 서명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중국 기독교는 항미원조(북한을 돕고 미국에 대항한다)를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며,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문화, 교육, 구제 기관과 종교 단체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미국과 관계를 끊도록 하는 한편, 모든 외국인 선교사의 중국 내 여행과 선교를 불허했다. 결국 1950 - 51년 사이에 모든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54년 7월 중국기독교항미원조삼자혁신운동준비위원회가 북경에서 중국기독교전국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를 마치면서 참석한 대표들은 삼자혁신운동이란 이름을 삼자애국운동으로 바꾸고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으로 확정지었다. 그 후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암흑기를 지나게 된다. 특히 문화대혁명의 시기는 중국교회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기간이었다.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교회를 통제하여 교회 주일학교가 제국주의 사상으로 아동을 해치며 문화 침략의 도구가 된다는 점을 들어 금

63) 김의태, “중국 기독교 역사와 선교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약신학대학원, 2005년), p24

지시키고 교회의 각 부서 활동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1959년이 되었을 때는 삼자교회를 제외하고 과거 조직된 교회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삼자를 반대하던 이들은 20년 이상의 옥고를 치렀다. 1963년에 이르러서는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를 그릇된 사상으로 규정하고 모든 종교의식을 금지시켰으며, 1963-1965년간 농촌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력하였다.⁶⁴⁾

1966-76년까지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소위 4구 운동(낡은 사상, 문화, 풍속, 습관)과 모택동 개인 우상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이 운동의 전위대인 홍위병들에 의해 교회당이 파괴되었으며, 성경은 불태워지고 많은 교역자들과 신도들이 소위 반혁명분자로 분류되어 자아비판과 노동 개조형에 처해졌다. 이 기간 동안 교회의 부지와 부속 건물 등 교회의 많은 재산이 강제 점유 당했으며, 교회는 완전 폐쇄되거나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전용되었다. 한편 이 때는 중국 정부가 세운 삼자교회와 생명을 건 성도들이 비밀리에 모여들어 자생적으로 생겨난 가정교회가 공존하는 시기이며, 10년 재앙의 시기에는 삼자교회도 재난을 맞아 그 활동이 정지되었으며, 중국의 가정교회는 정부와 삼자교회 운동에 의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⁶⁵⁾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중국교회의 부활 (1976-)

1976년 9월 9일 모택동의 사망에 이어 그 해 극단 분자인 사인방이 체포되면서 교회에 대한 압력은 좀 완화되었다. 그러나 현대화의 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는 등 등소평의 세력이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된 1978년부터는 종교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문혁기간동안 폐쇄되었던 종교사무국은 1977년 초에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 일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에 수년간 잠적했던 애국종교 지도자들이 정부 기관에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⁶⁶⁾

64) 이종윤, “중공선교의 전망과 대책”, (월간고신, 1984년 6월), p23

65) 김학관, 상계서, pp199-206

66) 이상범, “중국의 종교정책 변화와 선교적 전망”,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중국 교회가 30여 년간의 암흑기를 지나 새로운 부활과 성장의 분수령이 된 것은 바로 등소평이 4개 현대화 노선-과학기술, 농업, 공업, 국방의 현대화-을 주창하면서 이른바 중국식 실용주의 또는 수정 자본주의 형태의 경제 개혁을 실시하게 된 1978년이다.

1978년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 정책이 수록되었고 1979년 중미 국교 수립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비공개적인 선교 활동과 삼자애국운동이 재개되고 교회가 중건되기 시작했다. 1980년에 들어서면서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연안 경제특구 개방으로 다시 해안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편 제3차 중국기독교전국회의가 열려 중국기독교협회(CCC)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1982년 제정한 신헌법 36조에는 종교 신앙의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는 등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 인민의 신체 건강 및 국가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국가와 사회질서의 틀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 인민의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중국인들의 종교 활동에 대한 묵시적이고 임시적인 허용 정책이었다. 문화혁명 전의 종교 정책으로 복고되었고 삼자교회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가정교회도 다시 시작되었다. 1982년 3월에는 ‘19호 문서’ 67)를 발표했는데, 모든 교회가 반드시 애국 종교 조직인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관리 아래 들어와야만 그나마 제한적인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요구하기 시작하여 가정교회를 향한 핍박은 다시 찾아왔다. 중국은 1992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선언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고 전면적인 개방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4년부터 중국은 법규를 제정하여 가정교회가 종교사무국에 등록할 뿐 아니라 아울러 삼자회와 중국기독교협회에 가입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압력은 결과적으로 중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열정을

선교학, 2009년), pp41-42

- 67) ‘중국 사회주의 시기 종교문제의 기본 관점과 기본정책에 관한 문건’ 이라고도 불리는데, 중국이 1949년 이래 종교문제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제정한 것이며, 중국이 처음으로 종교방면의 기본 관점과 정책을 기술한 문건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무신론적 종교관이 기술되어 있는데, 종교는 인류가 발견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출현하는 현상이고 그 과정을 거쳐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교를 불허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석명철, “중국교회에 관한 전략적 사고”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년), pp7-8

더 부채질하여 더 먼 지역 심지어는 소수 민족 지역에까지 선교 활동이 확장되었다. 최근 2000년 영국국제선교회(WEC)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총 인구의 7.25%에 해당하는 9,153만 명으로 매년 7.7%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불교는 여전히 중국에서 신도가 가장 많은 종교로써 전체 인구의 8.38%, 이슬람의 경우는 2%를 차지했다. 중국 내 전통 종교는 28.5%로 그 비율이 1.14% 감소했으며, 무종교자의 경우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9.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⁶⁸⁾

68) 김학관, 상계서, pp216-244

제 3 장 중국교회의 현황

중국교회사를 논함에 있어서 지금의 중국교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교회의 200여 년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본 장에서는 중국교회사 가운데 형성된 중국교회만의 특수성을 지닌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나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종교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제 1 절 중국의 기독교 정책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리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의 종교비판은 주로 기독교에 관한 것이다. 당시의 기독교 신학은 공산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물질적 존재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종교를 거부하면서 반기독교적인 휴머니즘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삼자교회를 이해함에 있어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전국적인 기독교 조직의 건립을 목표로 하였던 중국정부의 성문화된 종교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 단체 또는 개인도 국민이 종교를 믿도록 혹은 믿지 않도록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믿는 국민과 믿지 않는 국민을 차별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그리고 어떠한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신체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 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종교 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② 19호 문서

1982년 3월 23일 발표된 ‘19호 문서’는 1980년 남경회의를 통해 추진된 통일전선적 종교정책으로 일어난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간의 대립과 충돌을 조율하기 위해 나온 종교정책 문서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⁶⁹⁾

- 인류역사상 종교는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 종교문제는 특별히 신중하고,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 종교 사업의 기본 업무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의 건설과 통일 사업의 완성에 있다.
- 18세 미만의 어린이 입교를 불허한다.
- 당의 종교 정책을 관철시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성직자들을 장악하여 단결시키고 교육하는 것이다.
- 종교 장소 이외의 전도나 선교를 금한다.
- 종교 정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애국 종교 조직을 충분히 활용한다.
- 종교 신학의 임무는 조국을 사랑하고 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게 하는 것이며, 직업 종교인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 공산당원은 유신론자여서는 안 된다.
- 종교의 뜻을 입고 반국가적인 불법 행위와 반혁명의 파괴 활동을 하는 경우는 엄히 처벌한다.
- 종교의 국제 우호적인 교류를 적극 전개하되 적대 세력의 침투를 통제한다.
-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발전을 이뤄 종교의 사회적 근원과 인식의 근원을 소멸한다.

③ 6호 문서

19호 문서에 이어 1991년 2월 중국국무원은 <보다 진일보한 종교관리 문제 통지>라는 일명 6호 문서를 만들었다. 19호 문서보다 더 진일보한 종교자유 정책문서라 할 수 있는 6호 문서는 10여 년간의 종교자유정책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들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하면서 보다 더 확고하고도 세부적인 관리지침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의 행보임을 알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⁷⁰⁾

69) 김학관, 앞의책, pp226-227

70) 전기호, “개방전후 중국기독교정책과 중국교회”,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 전면적이고 정확한 종교 신앙 자유정책
 -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과 국가가 종교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장기적인 기본정책이다. 이는 신자와 불신자가 단결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하기 위함이다.
 - 종교업무의 합법적 관리
 - 정부는 종교와 관련된 법률, 법규, 정책이 관철되도록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한다. 종교 활동 장소는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고, 외세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애국 종교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한다. 정부시책을 따를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 종교를 이용한 범죄활동을 철저히 응징한다.
 - 공식적인 정부기구로 종교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세우고 종교업무를 위한 간부 그룹 양성을 강화하라.
 - 당의 종교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종교계 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 대해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무신론 포함)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종교관련 출판물을 관리하라. 아울러 공산당원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
- 위의 법률이나 문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나 안으로는 철저한 통제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확연하다. 이로 인해 교회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로 갈림길을 걷게 된다.

제 2 절 삼자교회

1. 삼자교회의 재건

삼자교회는 중국이 1949년 공산화된 이후 형성된 교회로 일원화된 중국공

2007년), p62

산당의 지도를 실행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일환인 삼자혁신운동을 통해 생겨났다. 1954년 교회 대표자들은 북경에서 열린 “제 1차 전국기독교회의”에 참석하여 삼자애국혁신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 위원회”를 건립했다.⁷¹⁾

1980년대 공산당의 정책 전환으로 통일전선이 부상하면서 삼자교회와 삼자회의 활동이 재개되었다. 또한 문화혁명 당시 중단되었던 통일전선부, 종교사무국, 삼자애국운동위원회 등이 재건되고, 1966년 이전까지 실행되던 중국 공산당의 종교 정책이 회복되어 1980년 4월 삼자교회가 재건되었다.

당시 중국교회의 자립, 토착화 운동은 기독교의 중국화, 경제적 자립, 관리·행정의 중국화, 제도·조직의 중국화, 신학의 중국화라는 5가지 내용으로 그 방향이 모색되었다.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의 부패와 물가 급등은 공산당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역을 공산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모택동은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기독교를 공산당과 연계시키기 위해 삼자애국운동(삼자운동)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20세기 초 중국교회가 일으킨 삼자운동의 목적은 교회를 중국의 문화 위에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가 중국에 널리 전파됨과 동시에 중국인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뜻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이후 두 번째의 삼자운동은 그 성격에 있어서 처음 것과 달랐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교회 지배, 정부정책의 수행을 위한 수단이었다.⁷²⁾

삼자교회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기독교협회로 구성된 양회의 소속이다. 삼자교회는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삼자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에서 삼자교회는 공개적,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정부에서 기독교 신도들을 사회주의 중국건설에 동참하고 적극적인 힘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인교회조직을 허락하여 기독교 신도들이 그곳에서만 종교 활동을 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둘째, 사회의 조직체로써 삼자교회는 정부의 입장과 노선을 옹호 실천한다.

71) 김의태, 상계서, p32 재인용

72) 남기해, “중국의 종교정책과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1995년), pp27-29

셋째, 삼자교회의 존재와 활동은 정부의 정책과 관리, 통제를 따라야 한다. 종교 사업을 담당하고 지시하는 부서들은 당의 통일전선사업부(약칭 통전부), 정부의 종교사무국과 공안국이다.

넷째, 개별적 삼자교회의 특징과 상황은 각 지역의 상황과 종교 간부, 교역자로 인해 결정된다.⁷³⁾

결론적으로 삼자회와 삼자교회의 건립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949년 9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8명의 각 종교 지도자들 중, 기독교계에서 공산당의 통치와 지도를 받아들이고, 이들과 협력할 것을 주장하는 5명의 종교 지도자가 초청되었다. 이들은 회합 후에 교회 방문단을 만들었는데, 이는 인민정부에 교회의 대표로써 의견을 제시하고 공동강령에 대해 해석하고 공동강령에 명기된 종교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1950년 5월 2일, 6일 및 13일에, 이 교회 방문단과 주은래가 만났다. 이들은 신중국에서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담화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7월 28일 중국의 기독교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서양 제국주의와 분리되어 자주 독립의 노선을 걷는다는 것과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은 제국주의와 분리 및 청산에 대한 중국의 필요를 더욱 촉발시켰다. 이 전쟁으로 중국과 미국은 적대 관계로 급변하였으며, 미국 선교사들은 가택연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해 12월이 되자 중국 공산당은 미국에서 오는 자금을 동경시켰으며, 북한을 돕고 미국에 대항한다는 항미원조운동을 발기하여, 반미 정서를 고무시켰다. 동시에 기독교가 제국주의에 이용된 것을 지적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더욱 더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51년 4월에는 북경에서 ‘미국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기독교 단체 처리회의’를 전개했으며, 새로운 기독교 지도 기구로써 ‘중국 기독교 항미원조 삼자혁신운동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성립했다. 당시 이 기구는 이후 중국 교회의 유일한 지도 조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

73) 석명철, “중국교회에 관한 전략적 사고”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년), pp9-10

운동위원회’ , 즉 삼자회의 전신이 되었다.

넷째, 1954년에 정식으로 성립된 삼자회로 인해 1922년부터 각 교파와 기독교 기구 대표들로 구성된 중화기독교협진회가 전국 교회를 연결하는 기능을 상실하여 결국 1955년에 이 단체는 사역을 종결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중국의 기독교 조직은 오직 삼자회 뿐이었으며, 중국 기독교는 철저히 공산당이 통제와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다.⁷⁴⁾

그리고 1980년 10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영도 아래 기독교 신도들이 단결하여 조국을 사랑하면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삼자 원칙을 지지하는 주요 취지를 발표하였다. 1980년에는 남경회의를 통해 종교에 대한 통일전선적 측면에서의 종교신앙 자유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 이러한 종교의 개방 정책으로 등장한 가장 큰 문제점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간의 대립과 충돌이었다. 1983년부터는 삼정정책-정점, 정편, 정인-을 마련하고 이 원칙에 근거하여 자유 전도와 교역 활동을 비롯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삼정정책은 후에 또 하나의 정책-정시-이 추가되면서 삼자교회에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정점은 지정된 장소(삼자가 지정한 교회), 정편은 지정된 구역(삼자가 지정한 장소), 정인은 지정된 목사(삼자가 지정한 성직자), 정시는 지정된 시간(삼자가 지정한 시간)이 그것이다. 1984년에 이르러서는 공산당과 종교사무국에 의해 강력한 핍박이 다시 전개되었는데, 많은 가정교회들이 삼자회에 가입하게 된다.⁷⁵⁾ 제 6차 전국회의에서의 당시 삼자교회의 현황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삼자교회 성도는 1천 만 명이며, 교회 예배당은 1만 2천 개, 예배 처소는 2만 5천 곳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⁷⁶⁾

2. 삼자교회의 신학사상

삼자교회의 신학은 사회주의 정치 현실의 관점에서 모든 전통적 신앙과 신앙을 재사고하고 재평가하도록 하는 새로운 해석을 강조한다. 즉, 중국 사회

74) 김학관, 상계서, pp205-206

75) 김학관, 상계서, pp225-228

76) 김학관, 상계서, p219

주의 체제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지지하며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공산당이 공인하는 삼자교회 신학은 중국의 정치적인 신학인 것이다. 한편 삼자신학자들은 신학을 기독교인의 영성 체험의 총결이라고 정의하며, 신학은 기독교인의 영성 체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 교회의 신학이란 중국 기독교인의 영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경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강경 유물론자들은 삼자애국운동 목사들에게조차 성경의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금했으며,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특정한 책들은 읽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대항해 싸워야 하는 성경의 4가지 ‘미신적인 메시지’를 지적했는데, 금지된 성경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창조 - 태초에 하나님이 중국을 창조하셨다는 반 마르크스주의적이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존재에 대한 유일한 설명으로 믿는다.
- ② 재림 -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 ③ 영원 - 성경은 죽은 후에도 생명이 있으며,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지만, 중국의 유물론은 현재의 물질세계가 전부라고 가르친다.
- ④ 치유와 기적 -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금지되어 있다.

제 3 절 가정교회

1. 가정교회의 형성과 특징

1949년에 이르러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형세가 역전되어 공산당이 큰 세력으로 확장되어 나가자 1949년 4월 5일 당시 중국 선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미국 선교사 모토는 상해에 머물며 각 단체의 선교사 대표들과 중국 기독교 지도자 등 약 70여 명을 불러 2일 간의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참석자들은 중국 공산화 이후의 선교 사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당시 긴급위원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공산당이 필연코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

할 것이라 판단하고 여러 가지 긴급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각 교파는 가정교회와 독립교회로 나뉘어 각 지역에서 자유 전도를 실시할 것, 교회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흩어질 것, 교회는 가정으로 들어갈 것 등이다. 그 후 중국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환란에 대처하기 위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세포적이고 은밀한 교회, 그리고 흩어져 전도하고 도처에서 모임을 갖는 독립교회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다.⁷⁷⁾

중국의 문화혁명이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된 결과 중국의 유형 교회는 그 자취를 감추고 사실상 문을 닫게 됨으로 가정교회(또는 지하교회로 부름)활동이 전개된 것이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 정책은 사라졌고 교회 활동은 전면 중지되었으며, 성경은 금서로 취급되었고 교역자들은 모두 노동 개조소에 보내졌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선교를 중시하는 가정교회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으며, 무서운 박해를 통과하면서 전개된 가정교회 운동은 선교와 부흥의 역사였다.⁷⁸⁾ 삼자교회 지도자들은 중국의 교회는 하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중국 대륙에는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정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성장한 것은 1954년 제1차 전국교회회의가 열려 삼자회가 중국 전국의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실권을 장악하고 부터이다.⁷⁹⁾

중국의 가정교회는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의 형성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는 중국 공산화(1949년) 이전에 토착교회운동이 있었는데, 이 때 중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15년 산둥지역의 중화기독교회, 1920년 유국정의 중국예수자립회, 1917년 위은파의 참예수교회, 1921년 경전영의 예수가정, 1922년 위치만니의 지방교회 등의 자립교회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자립교회운동은 중국 공산화 이후 박해 가운데서 전개된 가정교회 운동과 1978년 개혁개방 이후의 가정교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두 번째 형성과정은 1949년부터 1958년까지 계속되었던 삼자운동 시기에 피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실질적으로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교회들은 폐쇄되었고 목회자들

77) 김학관, 『중국교회사』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5년, p157

78) 김학관, 상계서, pp207-209

79) 남기해, 상계서, p34 재인용

은 경고도 없이 해임되었다. 소수의 삼자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신도들은 가정에서 은밀히 모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중국 가정교회의 시작이다.⁸⁰⁾

1954년에 제정된 중국 헌법에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 이후에는 종교와 사상에 대한 철저한 제제가 실시되었고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는 4구운동-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을 타도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사원과 교회가 파괴되었다. 1959년이 되어 삼자교회를 제외하고 과거 조직된 교회는 완전 소멸되었고 삼자를 반대하는 자는 20년 이상의 옥고를 치렀다.⁸¹⁾

오늘날 중국의 가정교회는 선교사들의 신학 사상과 중국 자립교회의 역사적 전통 그리고 공산화 이후의 시대적인 상황 하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가정교회의 성립에 있어서 20세기 초반의 자립교회의 전통은 현대 중국 가정교회의 신학과 교회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등장한 중국의 가정교회는 공산화와 종교의 정치화로 인해 형성된 순수한 신앙 조직체이자 중국 교회의 평신도에 의해 일어난 자발적 신앙 조직이며, 또한 중국 토착 교회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받아 형성되었다.

1979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아래서 문화혁명 전의 종교 정책으로 복고되었고 삼자교회가 부활했으며, 가정교회도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3년이 채 안 되어 1982년 중국 정부는 ‘19호 문서’를 발표했는데, 모든 교회가 반드시 애국 종교 조직인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관리 아래 들어와야만 그나마 제한적인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삼자회에 등록하지 않은 많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여 가정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박해와 교회에 대한 강제적인 해체를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교묘한 정책과 무서운 박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가정교회들은 여전히 등록을 거절하였고 많은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투옥되었다. 그 후 1983년 10월 종교사무국은 반범죄 운동을 전개하여 대대적으로 가정교회를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많은

80) 김성국, “중국교회 현황과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고찰” (석사학위논문, 대신대학교, 2006년), p40 재인용

81) 김학관, 상계서, p182

기독교인들이 투옥되었으며, 새로운 박해 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가정교회가 삼자회에 가입했다. 한편 1989년 이후의 10년은 제2차 복음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나 농촌에서 복음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천안 문 사태는 복음을 문을 열게 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활발히 전개된 복음 운동과 외국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삼자교회에서 나온 기독교인들이 구성한 교회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 그리고 도시 내에서 생겨나는 젊은이들 중심의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해진 이러한 박해로 인해 오히려 가정교회는 더 조직화되었으며, 주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생활과 훈련 과정 그리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가정교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성을 지닌다.⁸²⁾

첫째,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

둘째,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 교회의 지도력과 권위구조를 인정한다.

셋째,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만찬과 세례식을 거행한다.

넷째, 그들은 제자도를 가르치며 교회를 훈련한다.

다섯째, 그들은 그들의 말과 생활을 통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 하도록 격려하고 훈련한다.

여섯째,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며 그들이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친다.

일곱째, 그들은 구제사업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자발적 움직임으로 신앙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2) 석명철, "중국 교회에 관한 전략적 사고",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2010년), p14

2. 가정교회의 형태와 지역별 특성

현재 가정교회의 형성과 유포는 매우 복잡하다. 하나의 통일된 조직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분포된 지역에 따라 그 특성도 다르다. 중국정부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전파하는 원래의 자립교회 형태의 가정교회 외에도 삼자교회의 목회방식이 맞지 않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다양한 형태로 퍼져 있는 가정교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⁸³⁾

첫째, 조직적, 발전적 가정교회이다.

교회내에 전문적인 전임사역자가 있어 계획적인 양육과 목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회 운영과 관리가 되어 있는 자립적인 교회이다. 자체적인 사역자 훈련과정과 배출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 지역 뿐 아니라 다른 현, 성까지 지속적인 개척전도 사역을 실시하고 개척된 곳에서는 새롭게 목양이 전개된다. 또한 조직적으로 교회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또 정부와 양회, 지역의 다른 삼자교회들로부터 압력과 위협도 받고 있다. 지역적 전국적인 연락망을 갖추고 있으며, 해외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의 양회와 통전부, 종교사무국과 공안국, 심지어 전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비조직적 반발전적 가정교회이다.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 뿐 아니라 교회내의 사역에 대한 분업과 책임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며, 전임 또는 책임적 위치에 있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이다. 교회의 존재를 주변 사람이나 심지어 정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와 탄압을 받지 않고 교회의 정기 모임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정기 모임 이외의 기타 활동은 비밀로, 또는 다른 은밀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반공개적 교회이다. 이웃과의 화합 등으로 보이기 하면서도 지도자 훈련이나 세례식, 특별 학습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은 자체적인 제약, 즉 인재, 물질 등의 제약으로 발전 속도가 느리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정채

83) 석명철, 상계서, p15

되거나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비조직적 정체적 가정교회이다. 정부나 양회, 또는 지역주민, 지역 신도에게 공개되지 않은 교회로 비공개적 가정교회가 있다. 단순하게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를 유지하는 교회로 목양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전임사역자가 없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회운영이 되지 않고, 장소는 보통 인솔자나 성도들의 집을 이용한다. 성도들은 보통 적게는 5-10명, 많게는 30-50명까지도 있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이런 비조직적, 정체적 가정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 지역의 기존 기독교인의 상황과 기독교 전통, 새로운 사역자들에 의한 개척활동의 전개상황, 지역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수용도에 따라 그 지역만의 특색으로 달라지게 된다.

① 화중지역

이 지역은 하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중부지역으로 인구와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고 많은 가정교회 운동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1950년대 말 인민공사 시절 하남성의 방성현에 있었던 15개 인민공사 중 13개 사원 모두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1948년 오직 한 현에만 4천 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는데, 1980년대를 들어서면서 111개의 현을 가진 하남성은 15개의 현에 평균 10만명 이상의 성도가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은 현재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지역이 생겨날 정도로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복음 전파가 가장 활발한 만큼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지역이기도 하며, 동방산전이나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이곳 가정교회는 문화대혁명 때도 신앙을 견고히 했기 때문인지 독자적인 신앙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배척이 심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강한 유대의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가 많고 분파가 많으며 방대하다.

② 화동지역

안휘성, 강소성 북부, 산둥성 남부가 이 지역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가정교회 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지역으로써 지금도 복음사역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해주 지역의 외국인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복

음에 개방적인 편이며, 성도들은 신앙훈련에 상당히 열심히 있다. 이 지역의 가정교회들은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밀접하며, 개인적인 특색이 강하다. 하지만 이단의 침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신앙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③ 화북지역

북경을 지역으로 하북성과 산둥성 북부가 이 지역에 해당된다. 발달된 문화의 영향으로 이 곳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신앙활동을 좋아한다. 지역적 특색이 강한 이곳 가정교회의 기성세대 지도자들은 보수적이며, 외부에 대해 배타적인 편이다. 때문에 오늘날 외부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신세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해결해야 할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④ 화남지역

이 지역은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과 광둥성 등 연해지역이다. 최근 절강성의 소산에만 몇 십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특히 온주는 하남성의 방성현처럼 절강성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지역이며, 온주상인은 전국 및 해외로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다. 화남지역은 1980년대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다. 현대적인 서방교회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은 지역이기에 가정교회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현대화되었다. 한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기에 교회의 성도가 많은 반면에 믿음을 저버리고 배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방언이 많아 이로 인한 배척이 심하고 미신숭배가 강하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95-1996년 사이에 중국에 등록된 묘가 4만개이며 150개의 신상이 길에 버젓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은 곳이 이 화남지역이다.

⑤ 동북지역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을 포함한 동북 3성 지역이다. 이전의 박해 시절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혹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 일지라도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다. 최근에 생긴 신흥교회들이 이 지역에 많아 초신자가 많은 편이다. 그들은 진리를 향한 갈망이 크고 순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다. 반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위험이 늘 있다. 흑룡강성에 가정교회가 강한 반면 요령성은 삼자

교회가 가장 강하고 부흥한 지역이다. 이곳의 삼자교회 지도자들은 비교적 가정교회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편이다. 이 지역은 한국인 선교사가 초기에 많이 사역한 곳이며, 최근에는 탈북자 사역 등으로 선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선족 선교사역에서 한족 지역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⑥ 서북지역

내몽고, 감숙성, 청해, 신강지역을 가리키며, 회교도와 라마불교가 강한 지역으로 복음전파가 어려운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강 최초의 교회는 가장 핍박이 심했던 문화대혁명 시기 개척되었는데,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죽을병에서 고침 받아 예수님을 만난 왕씨성을 가진 한 평범한 사람이 상해에서부터 신강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다고 한다. 현재 이 지역은 한족과 소수민족간의 갈등이 복음의 큰 장애물이다. 이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한족에 대해 소수민족이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싫어한다는 점과 언어상의 장벽 때문이다. 최근 미전도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백투(Back to) 예루살렘 운동의 전개로 점점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⑦ 서남지역

운남성을 중심으로 소수민족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변화하여 사람들이 배금주의에 많이 빠져있고, 사회적으로 마약과 치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지역의 종교정책은 엄격하지 않은 편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정교회 안에 소수 민족이 많다.⁸⁴⁾

3. 가정교회의 신학사상

“우리는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것임을 믿는다. 성경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진리이고 가장 높은 권위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함부로 바꾸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84) 김성국, “중국교회 현황과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고찰” (석사학위논문, 대신대학교, 2006년), pp43-46

에 대한 구속계획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섬기는데 있어 최고의 기준이다.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는 어떠한 주장도 반대한다.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반대한다. 또 어느 한 부분만 선택하여 믿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성경이 마땅히 역사적인 배경과 전체적인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성경은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읽어야 한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야 하며, 성경은 위, 아래가 연관되어 있기에 어느 한 문장만 골라 그 뜻을 취할 수 없다. 성경을 이해하는데는 반드시 역대 교회의 신앙적 전통을 참고해야 하며, 우리는 개인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주관적인 영해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85)

최근 가정교회가 연합하여 발표한 신앙고백 중 성경관에 관한 부분이다. 성경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가르침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가정교회의 갈급함과 기초적인 신학의 결핍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 중국복음회, 『중국교회와 선교』, 1999년, 7호, pp281-282

제 4 장 결론

중국 기독교 선교 역사는 1807년 모리슨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간 중국의 교회는 성장과 확장, 환란과 부활의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중국만의 특색이 있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탄생했고, 중국교회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교회사를 통해 본 기독교 선교의 과정에 대해 많은 견해들이 있다.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과소평가 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의외에도 새로운 학문에 대한 교재들을 제공하고 서양의 여러 학문을 중국에 소개하고 보급한 일 역시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행했다. 또한 윤리적 표준들을 보강하고 퇴폐적인 풍조를 몰아내고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앞장섰다. 여러 세기에 걸쳐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면 중국선교에서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가? 긴 선교 역사에 비하여 선교적 성과가 전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1949년 공산당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축출당한 중국 선교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더 나은 중국교회의 성장을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우월의식을 포기해야 한다. ‘반제국주의’는 중국에서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개혁의 과제이다. 중국처럼 자부심이 강한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의 주권이 위협받은 역사 앞에 놓일 때, 외국의 세력에 대한 경계와 반감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즉 식민지주의적 선교로 인식된 중국선교의 첫 단추로 인해 지금까지도 중국 선교는 먼 길을 돌아와야만 했다. 앞으로 갈 길 역시 순탄치만은 않다. 공산화 이후 단절되었던 선교 역사를 기억하며,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해 마음 깊이 이해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본다.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물질주의와 업적 위주의 원칙이 없는 선교에 대해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렵게 열린 선교의 문을 통해 중국교회가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교회는 외국 선교사들이 주체가 될 것이 아니라 중국인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삼자교회는 국가의 종교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지역사회를 향하여 교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광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애국 종교라는 인상을 심어 줌으로 많은 중국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받아 들여 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의 갈등을 안게 되었다. 교회의 교직원 임명, 재정지출, 신도의 확장, 교회 사회활동의 규모와 방식, 기독교 출판물의 출간과 발행, 교회 장소 설립 등 모든 사항을 정부에서 관리해 왔는데, 이에 대해 삼자교회 조차도 불만을 토해내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즉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삼자교회가 계속해서 교회 발전에 맞추어 정책과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종교집회, 선교활동에 대한 제한을 풀고, 예배당 건축허가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⁸⁶⁾ 그러므로 선교사역의 주도권을 현지 교회와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양하고 진정한 자치, 자양, 자전의 토착교회가 되도록 섬겨야 할 것이다.

가정교회 역시 국가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각종 이단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 이단들은 성경해석에 착오가 있으며 기독교 신앙과 중국 전통종교 등을 혼합한다.⁸⁷⁾ 가정교회는 대부분 하나님의 기적이나 생명력 있는 간증 등을 통해 복음을 접했으므로 신학적 기반이 너무 나약해 이런 이단의 공격에 무방비상태이므로, 견고한 신학적 기반을 가진 제자훈련과 사역자 훈련을 돕는 일 역시 나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이다.

셋째, 중국교회 역사에 대해 지협적이거나 편향된 사고를 버리고 중국교회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폐쇄적이었던 중국은 아직도 종교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원하고 있다. 교육, 의료, 기술, 상업, 문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86) 석명철, 상계서, p32

87) 인병국, 『중국선교 안개 걷기』, (도서출판 서역, 2001년), p 99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중국의 선교가 전면 중단되면서부터 자생적으로 걸어온 중국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 현재 개혁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다시 중국교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세계 각 국의 기독교 선교단체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숙제로 남겨진 것 같다.

참고문헌

1) 국내단행본

- 강문석, 『중국대륙선교』, (칼빈서적, 1995년)
- 김학관, 『손중산과 근대중국』, (집문당, 2004년)
- 『중국교회사』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5년
- 노신외, 『격동의 100년 중국』 (도서출판 일빛, 2005년)
- 이관숙, 『중국기독교사』, (쿤란출판사, 1995년)
- 이병길, 『로버트 모리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년)
- 『중국 선교의 어제와 오늘』, (개혁주의 신행협의, 1987년)
- 李時岳, 이은자 역, 『근대 중국의 반기독교 운동』, (고려원, 1992년)
- 인병국, 『중국선교 안개 걷기』, (도서출판 서역, 2001년), p 99
- 제3세계신학연구소, 『중국 기독교와 삼자운동』, (서울 : 나눔사, 1990년)
- 조나단 차오, 중국어문선교회 역,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서원, 1991년)
- 조훈, 『중국기독교사』 (도서출판 그리심), 2004년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2010~2011 차이나 트렌드』, (중앙 books, 2010년)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현대중국학회, 『공자는 귀신을 말하지 않았다.』, (중앙 books, 2010년)

2) 정기간행물

- 강인규, 『중국을 주께로』 “항일전쟁시기의 중국기독교”, (통권96호, 2006년 7,8월호),
- 이종윤, “중공선교의 전망과 대책”, (월간고신, 1984년 6월)
- 중국복음회, 『중국교회와 선교』, (1999년, 7호)

3) 논문

- 강근호, “개신교 중국선교에 대한 문화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1997년), pp38-39
- 고혜전, “중국 천주교 전래과정과 천주교 애국회 형성 배경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2003년)
- 김성국, “중국교회 현황과 한국교회의 중국선교 고찰” (석사학위논문, 대신대학교, 2006년)
- 김의태, “중국 기독교 역사와 선교 방안 연구”, (계약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년)
- 남기해, “중국의 종교정책과 선교전략”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1995년)
- 박희찬, “경교의 당 시대 선교와 한국 전래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1999년)
- 석명철, “중국교회에 관한 전략적 사고”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0년)
- 이상범, “중국의 종교정책 변화와 선교적 전망”,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선교학 석사학위논문 2009년)
- 이은경,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적 영성을 통한 현대 선교의 전망”,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8년)
- 전기호, “개방전후 중국기독교정책과 중국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2007년 석사논문)
- 정석배, “모택동 시대의 정치 상황이 중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통한 중국 선교정책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논문, 2009년)